＊다음은 지난 4월 10일字 동아일보의 1면에 게재된 기사내용입니다.

【1】 第21439號 【1955·2·21第3種郵便物(가)급 【1964·1·1登錄番號 가一

企業「환경관리인」설곳이 없다

公害업체「고용義務化」에도 雜夫취급

業主"團束피할 방안마련" 압력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배치돼있는 환경관리인들이 기업주에의해 「雜夫」정도로 취급돼 환경관리인을 통한 기업의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환경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환경관리인들은 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 각 공해배출기업의 배출방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등 기업 공해방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들은 대부분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해방지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하는등 공해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관리인들도 기업주에게 고용된 신분인데다 직급이 대부분 「기사」에 불과해 기업의 공해방지업무의 개선등의 활동은 벌이지도 못하고 있으며 기업주의 압력에 의해 환경처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데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환경관리인들의 이직이 속출하고 있으며 환경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로 직종을 바꾸는 경우도 허다해 환경전문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회장 李龍雲·44)에 따르면 지난76년부터 시행된 환경기사 자격시험에서 배출된 기사는 모두 3만2천명이나 이중 7천여명만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을뿐 대부분 타직종으로 전업했다는 것.

1、2급자격증중복소지자를 감안해도 전체자격증소지자중 30%만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공해배출기업들은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기준에 따라 1~2종 사업장은 환경기사1급、3종 사업장은 2급、기타 4~5종사업장은 일반직원 중에서 공해배출시설관리인을 두게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들을 총무과 품질관리과 공무과등에 배속시켜 환경고유업무외에도 다른 잡일을 시키는등 형식적으로 환경관리인을 갖춰놓는데만 급급한 실정.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李회장은 10일 『환경처의 권장에 따라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있으나 이러한 기업들도 대부분 품질관리과 산업안전과등의 기존부서의 명칭만 환경과로 바꾼데 불과할 뿐 환경관리인들이 환경업무외의 잡일에 시달리는 실정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전국회장단회의 개최, 회원들의 신분보장책 논의

본연합회는 최근 낙동강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발생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제정등 일련의 변화와 관련, 환경관리인들의 당면문제와 향후 대책을 주요안건으로 지난 4월 27일 대전 경하호텔에서 전국회장단회의를 가졌다.

이와 함께 본 연합회에서는 환경전문기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 환경관리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용운회장은 페놀오염사건후 단속강화로 이직 현상이 늘고 있는 현황과 관련, 기업의 압력과 양벌규정 및 특별조치법 등 법령으로 소신껏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인력인 환경관리인들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신분보장책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중국환경전문가 2인 내한

▲ 현명권부국장

▲ 리부웅점장

한편 연합회에서 환경관리인의 기술향상 및 국제적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초청한 중국의 환경전문가 2인이 지난 4월 30일 서울에 도착했다.

증경·직전회장을 비롯 현직회장단등 35여명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연합회 조직력강화와 환경관리인들의 법적, 제도적인 신분보장책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밖에도 회장단회의에서는 정기적인 회장단모임을 연2회로 할 것과 연합회 본부에 기술전문요원을 충원해 회원들에 대한 기술상담을 보완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연합회의 현 조직체계를 분과위원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현재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본 연합회를 사단법인화하는 방안등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비매품인 회보를 유가지로 전환하는 문제, 각 지역협의회에서 지출하고 있는 연합회 보조금의 차등제 적용, 연합회 자금을 확충할 수익사업의 종목설정 등은 내년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전문기자간담회서, 관리인 처우개선 역설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자치주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보호국 현명권 부국장과 동 감측점 리부웅점장 등 2인의 초청은 지난해 10월 본 연합회 이용운회장이 중국방문시 양국의 환경관리 및 기술적 제반문제에 대한 교류를 합의한 바에 의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양국 환경기술관리방법이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은 방한중에 연합회회장단과의 간담회 및 지방특별강연을 가질 예정이며, 환경처,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환경당국과 환경업계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서울협의회

폐수처리기술세미나

서울협의회(회장·장희산)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의 개선과 실무담당자들의 기술앙양을 위한 폐수처리에 관한 기술세미나 및 개정환경법규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4월 25일 YMCA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오성상사 대표 이명범씨가 강사로 초빙되어 「활성탄의 선택방법과 수처리에의 응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협의회

환경관리인 결의대회

부산협의회(회장·김효실)는 환경관계 공무원 및 동협의회 회원 4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 시민회관에서 환경관리인 결의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환경관리인 대표의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날행사에서 부산시청 차정호보건사회국장과 부산지방환경청 박종건청장은 기업윤리의 실천과 환경관리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천협의회

환경정화 실천대회

인천협의회(회장·유문하)는 지난 3월 30일 환경관련 종사자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환경정화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관리인들은 환경보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거리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결의대회 후 참가자 전원은 시민회관에서 수봉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광주·전남 협의회

무등산 사랑 심포지움

광주·전남협의회(회장·김왕근)는 지난 4월 2일 이 효계 광주시장, 시·도관계 공무원, 동협의회 회원 등 25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사랑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무등산의 편백류 등 수종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소나무 숲 조림의 적극 추진 필요성과 행락객에 의한 무등산공원의 훼손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등 대책을 강구했다.

대전 · 충남협의회

개정환경법규 세미나

대전 · 충남협의회(회장 · 이상윤)는 환경법 개정으로 정부시책이 강화됨에 따라 천안상공회의소(소장 · 양준호)와 공동 주최로 지난 4월 26일 천안상공회의소에서 환경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해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대전지방환경청 한정규사무관의 환경관련법 요약해설로 진행된 세미나에 이어 천안 원성천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다.

울산 · 울주협의회

'91년 환경교육실시

울산 · 울주협의회(회장 · 강병길)는 지난 4월 3일 울산환경보전협의회 사무실에서 부산지방환경청 울산출장소 주 유연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개정 환경관련법규 중점사항과 '91년도 환경정책 및 지도점검 방향에 관해서 약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표어 공모 및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확산정책 방안 등도 검토하였다.

경기협의회

환경기술표준화 교육

경기협의회(회장 · 이상호)는 페놀사건 등 일련의 환경관련 사건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가일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안양상공회의소에서 환경기술 표준화(방지시설 설계요령 및 처리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처 기술감리단의 이 규성위원이 강사로 초빙되어 수질오염, 폐기물소각로 설계요령 및 오염물질처리 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연합회

제주협의회 발기인총회

본연합회는 개정환경법규세미나 및 제주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 4월 12일 제주대학교에서 환경법규 해설교육 및 국내의 환경실태와 제주도의 환경보호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2백명 가량의 환경관계 종사자들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 이어 30여명의 관리인들이 모여 발기인총회를 갖고 한국전력공사 북제주화력발전소 화학공장의 문성홍씨를 임시 회장으로 선출하였다.